









#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밟들어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상한 풍모

## 당을

##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백록같은 충정과 순결한 맑음을 지니고 언제나 당을 따라 끝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폐불아회『영웅선열의 강용한 기상에 청년들을 앞으로!』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혁명의 폐불봉을 높이 주고 김일성평창을 보루당당히 행진해나가는 거세한 불의 흐름을 보며 세계는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앞으로!』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폐불아회는 본 외국의 벗들이

더운 경란과 친사의 목소리를 들

어보았다.

『9월의 광장에 굽이치는 폐불의 바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본 출이다.』

『세 대체들의 정신수준이 이

뜻과 높기며 조선의 미래는 보

## 하루

## 통해

## 본

## 참모

## 습

다 취향찬란할 것이다.』

그렇다. 언제나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500만 청

년전위들이 있기에 조국의 미

래는 끌없이 밟고 창강하다.

풀이켜 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역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과 불멸의

공적이 벌쳐워 및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혁

사자 위업을 실현하고 1950

년대에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

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총포설정은 치열한 반세계 전쟁

에서의 헌신승리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폐불

야희는 땅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

하여 끝까지는 한반도 걸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폐불아회는 본 외국의 벗들이

더운 경란과 친사의 목소리를 들

어보았다.

『9월의 광장에 굽이치는 폐

불의 바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본 출이다.』

『세 대체들의 정신수준이 이

뜻과 높기며 조선의 미래는 보

다 취향찬란할 것이다.』

그렇다. 언제나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500만 청

년전위들이 있기에 조국의 미

래는 끌없이 밟고 창강하다.

풀이켜 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역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과 불멸의

공적이 벌쳐워 및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혁

사자 위업을 실현하고 1950

년대에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

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총포설정은 치열한 반세계 전쟁

에서의 헌신승리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폐불

야희는 땅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

하여 끝까지는 한반도 걸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폐불아회는 본 외국의 벗들이

더운 경란과 친사의 목소리를 들

어보았다.

『9월의 광장에 굽이치는 폐

불의 바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본 출이다.』

『세 대체들의 정신수준이 이

뜻과 높기며 조선의 미래는 보

다 취향찬란할 것이다.』

그렇다. 언제나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500만 청

년전위들이 있기에 조국의 미

래는 끌없이 밟고 창강하다.

풀이켜 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역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과 불멸의

공적이 벌쳐워 및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혁

사자 위업을 실현하고 1950

년대에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

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총포설정은 치열한 반세계 전쟁

에서의 헌신승리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폐불

야희는 땅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

하여 끝까지는 한반도 걸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폐불아회는 본 외국의 벗들이

더운 경란과 친사의 목소리를 들

어보았다.

『9월의 광장에 굽이치는 폐

불의 바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본 출이다.』

『세 대체들의 정신수준이 이

뜻과 높기며 조선의 미래는 보

다 취향찬란할 것이다.』

그렇다. 언제나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500만 청

년전위들이 있기에 조국의 미

래는 끌없이 밟고 창강하다.

풀이켜 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역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과 불멸의

공적이 벌쳐워 및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혁

사자 위업을 실현하고 1950

년대에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

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총포설정은 치열한 반세계 전쟁

에서의 헌신승리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폐불

야희는 땅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

하여 끝까지는 한반도 걸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폐불아회는 본 외국의 벗들이

더운 경란과 친사의 목소리를 들

어보았다.

『9월의 광장에 굽이치는 폐

불의 바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본 출이다.』

『세 대체들의 정신수준이 이

뜻과 높기며 조선의 미래는 보

다 취향찬란할 것이다.』

그렇다. 언제나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500만 청

년전위들이 있기에 조국의 미

래는 끌없이 밟고 창강하다.

풀이켜 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역사에는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과 불멸의

공적이 벌쳐워 및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혁

사자 위업을 실현하고 1950

년대에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

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총포설정은 치열한 반세계 전쟁

에서의 헌신승리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폐불

야희는 땅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

하여 끝까지는 한반도 걸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어왔다.

## 이역의 아들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엇고 사는 천  
형제, 한집안식술, 해외혁명전우, 해외학  
명등이...

이것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이 밤이인은 고귀한 호칭이  
다. 세상에는 세이동포들이 많았어도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과 같이 이처럼  
뜨거운 혈연의 정이 넘쳐흐르는 호칭으  
로 불러우는 사람들은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조국은 우리 민족의 운명  
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품이며 충현과 제일동포들은  
우리의 귀중한 한식입니다.』

이역의 아들딸들을 어머니조국과 한피  
줄을 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술로 불  
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9월 충현국장을 70돐을 맞으며 충현  
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게 력사에 길이  
전해질 사랑의 축하물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담아 광화  
국정부와 조국인민들의 이름으로 따뜻한 동  
포애인사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축하물은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정치적 성실과 뜨거  
운 동지애, 동포애의 최고정회이다. 축하  
물의 구절구절마다 어려움 있는 송고한  
민족과 하늘같은 은정에 눈물을 적시  
며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과 함께 세상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풍을 로정불을 감회깊이  
들이켜보았다.

감격도 새로운 주제 101(2012)  
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충현지

부일군대회에 친히 축전을 보내주시며 대  
회를 제일조선인운동사에 길이 남을 영  
광의 대회로 빛내어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역사적인 첫 축전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 제일조선인운동의 강령적  
지침, 필승의 보급이며, 통포사회는 뜨  
거운 간격의 파도로 설레어였다.

이듬해인 주제 102(2013)  
년 1월 충현중앙상임위원회의 정에 제  
일조선인운동을 주제로 축전을 열어나가는 충현일군들  
에게 친히 축전을 보내주신 새롭게 축전은 또 얼마나 동포들  
의 심성을 새롭게 풀어버렸다.

나는 수령님께 서 끝에 주시고  
장군님께서 이를 주신 충현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입니다. 제일조선인운동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충현일군들  
에게 친히 축전을 보내주신 새롭게 축전은 또 얼마나 승리  
와 영광을 있음것입니다. ...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이의  
뜨거운 동지애에 동포들의 가슴은 맹세  
로 높뛰었다.

그때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마다  
총현에 뜻깊은 새해축진들을 보내주  
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도하고  
바빠서 일군들을 선으로 광복하고자 하시고  
총현중앙상임위원회 축기를 받아주시며 우  
리 당은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언  
제나 및지 않고 있으며 충현과 제일동포  
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그이의 두려운  
마음을 온 통포사회는 달그대로 뜨거운  
걱정의 도가니로 회하였다.

길깊은 그에 걸맞은 충현과 제일동포들의 신념은 확고부  
여졌다.

주제 103(2014)년 5월 충현 제  
2차 전제대회에 축하물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에 5월 결성  
80돐을 맞는 충현에 강령적 서한  
『위대한 충현중앙동지의 뜻을 향하여』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를 안겨주시었다. 이것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 제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는 데서 대학회의 의의를 가지  
는 역사적 사변이었다. 그때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누구나 충현결성 40돐을 맞  
주니상동맹이 그이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축전을 받아안았다.

얼마나 많은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운정으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상자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 보력영웅의  
높은 영예를 물리니었다.

그 뜻을 나누들을 통하여는 충현일  
군들과 제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답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을 다  
바칠 신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축하물을  
필승의 보김으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영광스러운 70성상에 애국충정  
의 기념비를 놓이 세운 남다른 군지와 차  
시고 영광의 앞자리에 있음것입니다. ...

역사적인 대회장에서 주체혁명위업 완  
성의 길에 한脚步 바친 일우수 없는 헌  
명동지들의 전열에 한우수 전 충현의 장  
을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충현대  
표들이 우리 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축  
하물을 선으로 광복하고자 하시고 충  
현중앙상임위원회 축기를 받아주시며 우  
리 당은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언  
제나 및지 않고 있으며 충현과 제일동포  
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그이의 두려운  
마음을 온 통포사회는 달그대로 뜨거운  
걱정의 도가니로 회하였다.

길깊은 그에 걸맞은 충현과 제일동포들의 신념은 확고부  
여졌다.

이런 목소리가 동포사회 그 어디에서나  
침자체 높아 나오고 있다.

절세위인들과 이역의 전사들이 대로 이  
어 뜻은 혈연의 뉘대는 이처럼 그 무엇으로  
어려워 가을수 없이 접하고 영원하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현과  
제일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제일조선인운  
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놓이 우러러 보고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털썩 떨고자 어  
국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가버는 충  
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신념은 확고부  
여졌다.

절세위인들을 충정으로 높이 모시고  
번번없이 떠드는 길에 애국위업의 승리  
가 있고 자기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경리를 빼어 사무하게 체험한 이들의 앞  
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본사기자 해영민

죽전을 받아안았다.

얼마나 많은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운정으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상자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 보력영웅의  
높은 영예를 물리니었다.

그 뜻을 나누들을 통하여는 충현일  
군들과 제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답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을 다  
바칠 신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축하물을  
필승의 보김으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영광스러운 70성상에 애국충정  
의 기념비를 놓이 세운 남다른 군지와 차  
시고 영광의 앞자리에 있음것입니다. ...

역사적인 대회장에서 주체혁명위업 완  
성의 길에 한脚步 바친 일우수 없는 헌  
명동지들의 전열에 한우수 전 충현의 장  
을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충현대  
표들이 우리 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축  
하물을 선으로 광복하고자 하시고 충  
현중앙상임위원회 축기를 받아주시며 우  
리 당은 충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언  
제나 및지 않고 있으며 충현과 제일동포  
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그이의 두려운  
마음을 온 통포사회는 달그대로 뜨거운  
걱정의 도가니로 회하였다.

길깊은 그에 걸맞은 충현과 제일동포들의 신념은 확고부  
여졌다.

이런 목소리가 동포사회 그 어디에서나  
침자체 높아 나오고 있다.

절세위인들과 이역의 전사들이 대로 이  
어 뜻은 혈연의 뉘대는 이처럼 그 무엇으로  
어려워 가을수 없이 접하고 영원하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현과  
제일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제일조선인운  
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놓이 우러러 보고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털썩 떨고자 어  
국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가버는 충  
현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신념은 확고부  
여졌다.

절세위인들을 충정으로 높이 모시고  
번번없이 떠드는 길에 애국위업의 승리  
가 있고 자기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경리를 빼어 사무하게 체험한 이들의 앞  
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본사기자 해영민

## 력사의 흐름에 도전하는 정지쿠데타

『자유한국당』에 거리들이 실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기를 쓰고 때에 탈리고 있다.

이자들은 절권세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한 현대구성『이니』하고 떠들어대며 저글이 야말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나라의 민족앞에 저지른 막강죄악에 대해 석고되며 회복되며 모자를 판에 『보수대통합』을 운운하며 세대교체방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나라의 민족앞에 저지른 막강죄악에 대해 석고되며 회복되며 모자를 판에 『보수대통합』을 운운하며 세대교체방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 퍼져나온 정치경찰과 같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로 비난하고 있다.

보수의 풍랑 같고 있는 보수대통합은 대로 『보수·친권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편집을 대를 듣고 있다. 한편 당명개정과 지도체제변경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비준미례당』과 『대통령당』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여적당이야말로 『친민당』에 맞서